

녹색성장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 : 과제와 실천*

Healthy Family from the Perspectives of Green Growth : Mission and Practice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승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전임강사 김유경**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Dept. of Family Welfare, Soongyei Women's College
Full-Time Instructor Kim, Yook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녹색관점과 건강가정 : 실천과제 |
| II. 녹색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 V. 결론 및 제언 |
| III. 녹색성장의 관점과 가정 그리고 가정학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spectives of Green Growth and Healthy Families, and to suggest an expansive paradigm for the study on Healthy Families in the context of Home Economics. From the perspective of Green Growth, the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the ecological value, and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ty network were searched as the key points. So, from the key points, and in the context of Healthy Families, two strategies were suggested: First, the care services in the Center for Healthy Families have to be extended to give more opportunities to the users and the various demands for the care services can be satisfied. Secondly, the exchange of services has to be more activate in the local community so that our society itself can become a completely family-friendly society.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a mission of Home Economics, that the study for

* 이 논문은 2009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임

** 주저자: 송혜림 (hrsong@ulsan.ac.kr)

*** 교신저자: 김유경 (ykim70@sewc.ac.kr)

family policy, the development of related programs, and the education of professionals for the Center for Healthy Families can be more connected with the perspectives of Green Growth, especially the focus on family, its ecological living patterns and the detailed attitudes needed to balance between industry, the economy, and family in the context of Green Growth.

Key Words : 녹색성장(Green-Growth), 건강가정(Healthy Families), 가족정책(Family Policy), 건강가정사업(the programs for Healthy Families)

I. 서론

환경 보호와 녹색 성장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과 함께, 이를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면서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즉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녹색 성장 정책이 우리 나라의 국정 방향으로 정립된 것이 2008년 도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녹색 성장에 부합되는 실천적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자원의 소비에서 보호로,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환경 보존과 경제개발 간의 갈등에서 균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성장에서 부각되는 핵심적 가치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균형과 양립’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는 다분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부각되지만, 동시에 과거와 같은 개발과 성장 위주의 방향으로부터 자원과 환경의 보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등이 함께 추구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녹색 성장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나 신기술 개발의 차원을 넘어 생활양식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주민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혜

영, 2009 : 58).

따라서 녹색 성장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은 단지 환경이나 생태계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 4), ‘지속가능하다’는 의미는 웰빙과 건강, 지속적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 (이연희·이현아·박재옥, 2007 : 22; 박중수, 2005 : 130)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도 상통하기 때문에(권혁길, 2006 : 7; 박성복, 2003 : 6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 26) 삶의 모든 철학 그리고 패러다임에 적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요구되는 원리는 책임, 예방, 보호, 절약, 재생 등과 같은 지향성이며(권혁길, 2006 : 6), 이는 개발과 성취에 대비되는 살림과 돌봄의 생활세계로서 가정생활에서 실천되는 지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송혜림, 2005 : 17). 또한 ‘지속가능하다’는 말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으며(정윤경, 2004 : 185), 미래 세대를 고려하기 때문에 재생산의 의미가 필연적으로 부각된다 (이연희 외, 2007 : 22). 이런 맥락을 강조할 때, 날마다의 일상적 생활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통해 생활유지·인격의 형성과 발달·공동문화의 창조를 이루어내는 재생산의 장

으로, 인적 자본의 형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의 유지와 보호를 과제로 삼아 온 ‘가정’이라는 생활단위 그리고 그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가정생활은(V.Schweitzer.1991), 이미 지속가능한 가치와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태는 다를 지라도 가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초역사적으로 지속해 온 실재이자 앞으로도 지속될 실재(이기영, 1997: 32)라는 점에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정이 갖는 돌봄과 살림의 속성과 내용 역시 지속가능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송혜림, 2005: 18 재인용). 따라서 가정 및 가정생활을 주제로 연구를 해 온 가정학 그리고 그 하위 학문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함께 녹색성장, 녹색관점 등을 통해 연구의주제와 접근법을 재조명하고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 성장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성장방식으로 정의된다¹⁾.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성장도 동시에 도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녹색 성장의 실천방안은 다분히 국가주도적인 차원에서,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어 온 한계를 보인다²⁾. 그러나 녹색성장에서 중시하는 생활의 녹색혁명을 고려할 때, 그 실천주체인 가정이 중심이 되어, 예컨대 지속가능한 소비가치의 도입에 따라 처분과 사용, 구매의 전과정에 걸쳐 사회의 건전성·경제적 효율성·환경적 지속성을 강조할 수 있어(배순영, 2009)³⁾, 녹색관점을 인식하고 획득하며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가정을 부각시킬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단위로서 가정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

녹색 관점이 실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세대에 걸쳐 그 가치를 전달하고, 날마다의 가족자원관리와 가정경영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생활양식, 가정생활문화에 그대로 표출될 것이다. 따라서 녹색 관점이 중요한 사회적 지향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조망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녹색성장 그리고 그 토대를 형성하는 녹색 관점에 주목하여, 생활과학이나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 주는 시사점, 또 관련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향후 연구의 방향성 등을 검토하여,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와 실천 분야 모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가정’과 연계하여, 녹색 관점에서 건강가정에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건강가정’의 개념이 이미 녹색 관점이 지향하는 토대하고 있으며, 향후 녹색 관점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임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가정에 접근하는 이론체계 중 생태체계론은 인간과 가족의 생존, 그들의 삶의 질, 환경보호 등의 이슈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을 관리하고 창조하는 방식,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녹색 관점에 매우 직결되는 내용이다. 또한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 건강한 시민의식, 자원봉사 참여, 합리적 자원관리, 가정문화창조유지, 자녀의 성장 지원과 같은 내용은 녹색 관점이 지향하는 바 공동체의식, 미래세대에의 관심이라는 속성과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 중 그 개념, 지향성 등과 관련하여 녹색 관점과의 연계성

1) 이정전(2009). 녹색성장과 녹색소비. 대한가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 송혜림(2009a). 녹색가정 녹색생활 - 가정학에 주는 함의와 과제. 대한가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 배순영(2009). 녹색생활혁명과 가정. (사)가건모 주최 제 3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고, 나아가 이를 건강가정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에서 실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녹색 관점을 통해 연구활성화 및 실천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II. 녹색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한 세계의 상황은 기상재해와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한 인류의 생존 위협, 에너지 다소비체계 지속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전망, 에너지와 자원의 부족 및 가격상승, 신흥 개도국의 경제개발,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우기중, 2009) 이러한 변화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조희금, 2009 : 25 재인용).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아우르는 대한 성장의 개념이며, 기본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되 녹색으로 표현되는 환경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조희금, 2009 : 23). 한편 EU,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도 녹색성장을 중요한 국가정책 아젠다로 수용하고 있는데, 1990년대 초 지구의 기후변화가 이미 국제적인 아젠다로 등장한 바 있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유도하게 되면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 16 재인용).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국제적 공조를 절감한 세계 176개국 국가의 대표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모여서 논의

한 끝에 기후변화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80-85%가 화석연료의 이용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화석연료 이용의 감축방안이 사실상 기후변화협약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정전, 2009 : 7). 여기에서 녹색성장정책이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재생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이해할 수 있다 (방석호, 2009 : 4-30).

한편 지금까지 녹색성장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실천과제가 논의되어 오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자체가 탄소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절약 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이정전, 2009 : 9) 이미 그 개념 안에 '경제'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을 보면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계 운영,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국토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위험에 적극 대응,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인데 (녹색성장위원회, 2009 : 1), 이러한 과제에서도 경제, 산업,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녹색 성장은 에너지 관련 정책이 중심을 이루는 경제성장정책이라는 점에서(방석호, 2009 : 4-30-4-31) 경제에 대한 강조점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가 생활의 녹색혁명(녹색생활혁명)인 바, 녹색소비의 생활화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있다. 즉 녹색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

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 실천내용으로는 친환경제품의 구매,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폐기물배출의 감축 등인데(이정전, 2009: 9),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전략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생활양식과 패러다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녹색성장이 지금까지 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오던 경향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활 그리고 소비로 그 패러다임과 내용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및 성장전략으로 부상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소비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정책에서의 녹색소비자는 녹색생활혁명을 통해 소비생활 전반에 녹색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녹색생활은 소비생활의 구매·사용·처분의 전 과정에 이르는 것으로, 즉 녹색구매, 녹색사용, 녹색처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희금, 2009: 31).

이처럼 경제적, 기술적 관점 위주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위해 ‘행복’을 강조한 이정전(2009: 12)은,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소비, 즉 환경파괴적 소비, 과시적 소비, 적응적 소비를 줄여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정한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의 탐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시사하고 있다.

III. 녹색성장의 관점과 가정 그리고 가정학

위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의 등장배경과 개념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생활의 핵심기제로서의 ‘가정’에 주목하여 녹색성장의 관점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가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가정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1. 녹색성장 관점과 가정

먼저, 녹색성장 혹은 녹색성장의 관점이 하나의 사회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있다는 점에서 (최연실·성미애, 2009: 100), 녹색 관점을 실천하는 주요 기제로서 가정이 부각된다. 현재 녹색 성장이 지향하는 바가 “생활의 녹색혁명 즉 녹색생활혁명”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생활 속에서의 혁명적 실천이 중요한데, 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서 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생활의 단위는 가정이며, 이를 구성하는 의식주생활과 가정경영, 소비 그리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등에 이르기까지의 가정생활의 각 영역에서 공유되는 녹색의 관점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가족자원관리전략, 돌봄노동수행의 방식 등에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전체에 퍼져있는 자원 고갈의 위기감, 자원을 둘러싼 갈등 등은 많은 국가들이 배려, 신뢰, 협동, 돌봄, 예방, 절약, 윤리 보다는 경쟁, 시장, 생산, 자본주의, 개인주의, 효용을 추구한 결과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는 경쟁보다는 공존, 생산보다는 생활, 개인주의보다는 이타주의와 공동체의식 등의 덕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덕목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되고 경험된다는 차원에서(이기영, 2007), 가정은 녹색관점의 내면화와 실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의 보호, 에너지의 절약 등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익 만을 우선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편리함을

포기하는 삶, 나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삶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가정경영과 자원관리의 양식, 부모역할 등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 속에서의 혁명은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 가정 차원에서의 인식이나 각성에 기초할 때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성란(2011: 19)은 가정에서의 녹색가치의 실천, 즉 녹색생활을 위해 녹색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받아들이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녹색지향의 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때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적 실천은 개인의 생활영역, 생활공동체로서 가정에서 어떠한 생활양식을 펼쳐나가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녹색정책 실천을 위한 가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녹색성장은 국가·지자체·기업·시민사회·가정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패러다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녹색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의 관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삶의 근본터전이자 생활세계인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녹색 거버넌스에 가정과 일상문화가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26)는 점에서도 녹색 성장 관점에서 ‘가정’ 그리고 ‘가정생활’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이 일상적인 생활현장에서 녹색생활혁명의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생활양식 실행의 주체로 규정할 때, 구체적으로 녹색생활양식의 실제적·실천적 차원에서 가족이나 가정이 수행하는 역할은 의식주생활습관의 총체적 개선, 친환경생활방식과 소비, 생활문화운동의 주도, 가정을 통한 환경교육의 중요성 등의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다(최연실 외, 109-115). 종합적으로 녹색성장 및 그 관점은 재화를 보호

하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그리고 사적 영역에 대한, 나아가 인간의 공동생활과 문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성, 더불어 사는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점에서 가정생활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V.Schweitzer, 1991).

다른 한 편으로, 녹색성장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정윤경, 2004: 185), 미래 세대를 출산하고 돌보는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정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할 수 있다. ‘지속가능하다’는 말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미래 세대를 고려하기 때문에 재생산의 의미가 필연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이연희 외, 2007: 22). 날마다의 삶에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정은 이미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기본적인 생활단위라는 점에서, 녹색 관점과 그 토대를 함께 하고 있다(송혜림, 2009b).

나아가 녹색성장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원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책임, 예방, 보호, 절약, 재생 등과 같은 지향성이며(권혁길, 2006: 6), 이는 개발과 성취에 대비되는 살림과 돌봄이라는 지향성, 즉 가정이 갖는 기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송혜림, 2007: 26). 가정은 날마다의 일상적 생활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통해 재생산에 기여하며 인적자본의 형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의 유지와 보호를 과제로 삼아 왔다는 맥락에서 (V.Schweitzer, 1991) 그러하다. 가정은 돌봄과 배려, 협력을 체합하고 여가와 휴식을 공유하는 재생산의 단위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문화의 중심에 있다(대한가정학회, 2007). 따라서 녹색 관점이 추구하는 바, 공동체의식을 체득하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기본적인 생활단위로서 가정이 갖는 의미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보

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현재의 노력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가치, 건강한 삶의 표준 그리고 생활양식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그러므로 가정은 녹색생활양식이 기본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터전이며, 가족은 그러한 녹색생활양식을 주도해낼 수 있는 주체적인 인적 자원이라고 할 것이다 (최연실 외, 2009 : 101).

2. 녹색성장 관점과 가정학

위에서는 녹색성장의 관점과 가정 그리고 가정생활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논하였는데, 가정을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온 가정학이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무엇보다 녹색관점은 가정학의 하위연구분야들이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지향성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학 및 생활과학의 경우, 지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실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정학이라는 전체체계를 구성할 것인지를 모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대안이 포착되었다. 예컨대 삶의 질, 개인과 가족 및 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가정학의 궁극적 목표를 ‘가정복지’라는 용어로 재개념화하면서 가정학의 통합성도 도모하고, 동시에 복지적 관점과 접근을 통한 실천성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안이다. 가정복지의 재개념화는 사회복지적 관점과의 중첩 논란 속에서 welfare 가 아닌 광의의 보편적 복지, 즉 wellbeing, 건강에 대한 포착으로 이어져, 특히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가정의 건강성 주제와 연계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기영·김유경·송혜림, 2010 : 23).

특히 가정학의 경우, 그 이론적 토대에 있어서 이미 생태체계론, 즉 인간과 가족의 생존, 그들의

삶의 질, 환경보호 등의 이슈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을 관리하고 창조하는 방식,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관점을 제시(조희금 외, 2009)해 왔으며 이로써 가정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킨 바 있다. 가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양식은 곧 개별가정의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생활양식에 영향 미치는 가치와 욕구, 목표 등을 체계론적으로 연구해 왔다는 점에서 녹색 성장에서 관심을 갖는 환경에 대한 조망이 이미 가정학의 연구관점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정학의 근원을 고려할 때, 고대 가정학을 의미하는 Oikonomia는 가정의 근본적 형태인 Oikos 그리고 법, 경영, 관리, 경륜, 규범 및 미션(mission)을 의미하는 Nomos를 합한 개념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또 사명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때 철학자 Xenophon이 제시한 Oikonomis의 다섯가지 철학이, 녹색 관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갖는다. 즉, 소유에 대한 상대적 가치, 재화에 대한 올바른 처분 및 그와 관련된 올바른 태도, 자원의 적절한 사용, 가정경영에 대한 도의적 책임 그리고 수단에 적절한 소비수준이 바로 그것이다 (V.Schweitzer, 1983). 이로써 근원적 의미의 가정학이 원래 가정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과시적이고도 낭비적 소비를 지양하고,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중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오늘 날 녹색 관점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있다 (송혜림, 2009a : 176).

3. 녹색성장과 가족자원관리학

가정학 중에서도 특히 가족자원관리학에 주목할 때, 조희금(2009 : 18)은 가정학의 하위분야로서 가족자원경영학이 토대해 온 주된 접근법인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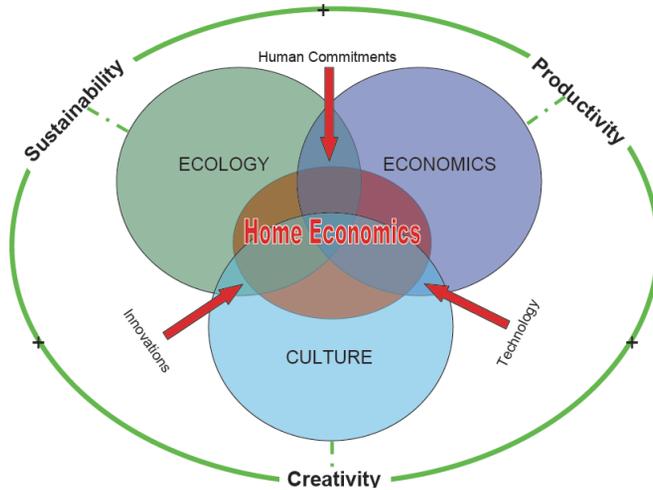
려해 왔으며 이로써 가족자원경영학은 ‘진정한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과, 가족의 일상생활이 가정학의 주요대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날마다의 가족자원관리가 축적되어 생활양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자원관리 즉 자원의 획득과 창출, 사용에 대한 결정이 가족의 욕구나 목표에 달려 있으며, 가족이 가진 욕구나 목표는 가족의 가치로부터 나온다는 점, 따라서 날마다의 삶이 물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자원관리방식, 이에 영향 미치는 가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과 실천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녹색 성장과 가족자원관리의 직접적인 연계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녹색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우리 미래세대가 겪어야 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더 적게·더 느리게·더 작은 것을 선택하는 생활양식 즉 ‘생태학적 합리성’을 생태학적인 자원관리와 연계시키고 있다 (송혜림, 2009b: 12 재인용).

보다 구체적으로 녹색 관점과 가족자원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송혜림(이하 2009b: 13-17)은 두 가지 방향에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근본적이고도 추상적인 차원에서, ‘광의’의 가정관리학의 핵심적인 이론과 체계를 다루어온 가족자원관리학의 토대를 고려하여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동반되는 가족자원관리과정에서 녹색 성장을 내면화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개념들, 예컨대 생활양식과 생활문화, 생태학적 가치관, 환경 그 자체에 대한 관심 등, 소위 ‘녹색 관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물질적 성장의 주역이었던 경제적 인간형(homo oeconomicus)의 시대, 즉 자연을 정복하고 자원을 소비하는 시대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문제에 주목하여, 가정경영의 합리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인간형, 즉 파괴보다는 보호와 유지 그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갖는 인간형, 성취 뿐 아니라 돌봄과 보살핌도 책임지는 인간형이 주목받는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정경영의 합리성 혹은 생태학적 합리성의 요소들을 개발하고, 이를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연구해 온 주제, 즉 생활양식과 생활문화, 가정철학,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양식 등에 접목시켜, ‘가족자원경영에서 접근한 녹색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자원관리학이 녹색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또 하나의 방향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가족자원관리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요소들, 즉 쓰레기 배출, 물 사용,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식습관, 교통수단 선택 등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 태도와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가족자원관리학에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온 주제들이기도 한데, 가족의 자원관리행동 조사분석 그리고 진단과 개선의 계획, 에너지 절약 행동 연구,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지침 개발, 친환경적 구매행동, 식습관이나 교통수단 선택의 변화를 통한 가계비 절약 등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학과 가족자원관리학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연구해 온 주제들은 지난 2007 세계가정학회에서 제시된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가정학의 기여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녹색 관점과의 연계성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에 대한 모형으로 가정학이 생태학적 사고와 경제학적 사고, 그리고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인간적 관계, 혁신,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성, 지속가능성, 창조성을 창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

Turkki, K.(2007). Home Economics as a Discipline and Science. Research Programme including frameworks and references (이기영 외, 2010 : 28 재인용).

여기에서 좋은 생활이란, 건강한 삶, 올바른 삶, 추구하기에 바람직한 삶 그리고 그 생활표준과 관련된 것이다 (이기영 외, 2010 : 29). 특히 연구결과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정학의 통합성 그리고 생태체계론적 접근에 주목할 때, 미래의 사회는 경쟁적이고도 물질 지향적인 경제적 인간형(homo oeconomicus)이 아닌 돌봄과 회복을 통해 포용과 소통의 원리를 주도하는 인간형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인적 자본의 형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의 유지와 보호를 과제로 삼는 행동(V.Schweitzer, 1991) 그리고 건강한 생활양식,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사회적 책임, 문화적 다양성의 조합(Turkki, 2007)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과학이 갖는 생태적 사고, 자원에 대한 철학,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등은 ‘좋은 생활’이라는 결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그림은 가정학의 생태학적 사고, 자원의 한계 라는 조건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학적 사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간적 관계, 혁신,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성, 지속가능성, 창조성을 창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기영 외, 2010 : 31 재인용).

따라서 녹색 관점은 가정학의 통합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연구분야들이 공히 추구할 수 있는 공통의 관점과 접근법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가족자원관리전략을 통해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의 대안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IV. 녹색관점과 건강가정 : 실천과제

위에서는 녹색 성장에서 중시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가정 및 가정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래서 가정을 연구하는 가정학 및 가족자원관리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녹색 관점에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았다. 이제, 상술한 바 가정학의 실천성과 동시에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중 보편적 복

지, 즉 wellbeing, 건강이라는 개념을 포착하여 최근 들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가정’을 중심으로 녹색 관점의 맥락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학에서 발전시킨 ‘건강’의 개념이, 통합적이고도 보편적인 내용으로 발전되면서 나눔과 참여, 균형, 양성평등, 공동체의식 등의 지향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건강가정의 관점이 녹색 관점과 연계되는 지점도 함께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계속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건강가정의 개념이 사회적·문화적으로 확장된 요소들, 즉 그 안에 평등과 민주성, 복지, 평화, 안전과 안정, 자율성과 주체성, 공동체 문화의 창조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 것, 즉 ‘적극적 건강’의 개념 자체가 가정학의 독특한 산물이라는 점에서(송혜림, 2005: 12) 이제 그 개념과 내용, 범주 그리고 적용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야 하는 직면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녹색 성장의 관점과 건강가정과 연계는 다분히 실천성을 중심으로 접근되는 바, 정책과 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녹색 관점이 건강가정과 연계되어 실천적 차원에서의 산출로 가시화된다고 할 때, 정책이라는 차원에서의 방향성이 도출될 것이며, 이 정책을 실현하는 현장에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가정과 관련해서는 가족정책 그리고 실천현장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의 차원으로 논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의 관점과 건강가정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념과 지향성이 갖는 내용의 공통적인 지점을 도출해야 할 것인데, 먼저 앞에서 분석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바,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문화 구축, 자원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태도 등이 핵심주제로 도출될 수 있

다. 다음으로 건강가정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는 건강가정의 구성요소를 경제적 안정,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휴식 및 여가공유, 자녀의 성장 지원, 가정문화 창조유지, 합리적 자원 관리, 열린 대화, 민주적 평등의식, 가족역할공유, 건강한 시민의식, 자원봉사참여로 규정하고 있다(조희금 외, 2009).

1. ‘돌봄’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사업의 재구성

이제 이 두가지 개념을 연계시키면서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면, 먼저 녹색 성장에서 주목하는 지속가능성이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강조할 수 있는 바, 건강가정의 구성요소에서 자녀의 성장 지원을 강조할 수 있다. 녹색성장정책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중, 현재까지는 주로 기술과 에너지의 개발, 환경보존이라는 물리적 환경이나 기술에 대하여 주로 주목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에너지분야의 물리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식자본과 인적자본의 향상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역시 주요한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한 기술과 에너지,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가 되는 현재의 아동들에 대한 인적 투자, 사회적 투자도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홍승아, 2009: 12).

현재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 현상과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가정-사회 간 분담은 이미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인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보급 중에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통합적이고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데,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함께 가는 가족: 2006-2010년)과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가족행복 더하기: 2011-2016년) 간에 그 지향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녀 돌봄의 사회화 라는 관점에서 시설, 서비스, 전담 인력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자녀돌봄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고, 따라서 가족돌봄의 사회화 라는 대과제 아래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가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5). 반면, 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녀돌봄지원강화에 초점을 두어 자녀돌봄지원의 다양화 그리고 부모역할을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0). 즉, 이러한 변화는 제 1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자녀돌봄지원 관련 정책의 내실화 라는 차원에서 다양화를 모색하며, 동시에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의 분담과 함께 가정에서 부모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자녀돌봄의 국가사회적 분담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그리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건강한 부모역할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녹색 관점과 건강가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돌봄서비스 관련하여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6개 공통필수사업, 즉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가족돌봄지원사업에 속한 자녀돌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와 관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돌봄공백을 위한 자녀돌봄지원(초등취학적응 돌봄서비스, 임시휴교와(단기)방학 돌봄서비스, 놀도 돌봄서비스,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등), 학습도우미, 돌봄지원과건 서비스 제공,

이웃사촌한가족, 멘토-멘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1a).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서민·중산층 가정의 안전하고 틈새 없는 자녀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종일 기존의 아이돌보미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모나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긴급돌보미를 배치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가족정책 4G 시대, 즉 예방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선택의 가능성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 나라 가족정책의 과제를 고려할 때, 향후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가정의 건강성과 관련하여 추상적 의제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바, 예를 들어 시행중인 영아돌보미, 아이돌보미, 방과후돌보미와 같은 직접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들을 보다 중심적인 과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진미정, 2011).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특성이나 생활주기에 따라 자녀돌봄에 대해 갖게 되는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틈새를 메꿀 수 있는 치밀한 정책설계 하에 타겟을 정하여 체감형의 돌봄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갖는 이동의 제한성, 돌봄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발달주기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건서비스의 다양화, 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공될 수 있는 한 마을돌보미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제공기관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맞춤형의 돌봄지도(송혜림·조영희·정영금·고선강·김유경, 2010), 지역사회 안전지도 작성 및 보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영역으로 규정하고,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는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출산, 양육하는 가정의 기능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사회적 분담과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의 건강한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시설과 사교육에 의존해 온 기존의 자녀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1년도 건강가정사업과의 연계성을 포착할 때,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영역이 이에 해당하는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 대상 아버지교육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맞벌이가족 체제에서 자녀 돌봄을 ‘부담’으로 인식,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자녀와 부모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부모와 일정 시간 함께 생활해야 할 아동의 권리에 주목, 건강한 부모역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혜림 외, 2009c).

특히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부모역할 수행의 기회, 부모의 역량 강화 그리고 부모주권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자녀돌봄의 기쁨’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자원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모든 가정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것이므로 모든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따라서 그 내용 면에서는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자녀를 미래 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협력과 연대, 공생의 가치를 체현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역할의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도 좋은 부모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가족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배(여성가족부, 2011), 향후 건강가정사업에서 부모교육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통해 녹색성장의 관점이 지향하는 바, 돌봄과 보호의 가치,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지향성 등이 건강한 부모역할을 통해 전달되고 체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문화 강화

다음으로 녹색 성장 관점에서 강조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문화 구축이라는 지향성은 건강가정의 구성요소 중 건강한 시민의식, 자원봉사참여라는 내용과 연계될 수 있다. 이는 가정구성원의 관심이 내 가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 지역사회, 가정과 가정 그리고 가정과 사회 간 상호관계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생태학적 사고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특히 우리 사회 가족의 폐쇄적 이기주의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가족을 단위로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다른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가족 단위의 연대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며, 가족단위의 상호배려와 도움 주고받기 등의 다양한 가족 단위의 연대를 통해 사회의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가족 단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권용혁, 2011 : 11)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품앗이 사업에 주목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품앗이 사업은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영역에서 이미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등의 차원으로 진행되어 오던 공동필수프로그램인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1a), 최근에는 외부기관의 지원으로 전국 23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품앗이가족을 확산하고, 가정과 가정 간 연계를 통해 자원의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가족돌봄지도 제작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원활용의 편의성 및 효과성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도서관, 장난감대여 등을 운영하면서 자녀돌봄을 지원하며, 나아가 다양한 품앗이 활동을 통해 체험, 교육, 자원봉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1b).

이 품앗이 사업이 단지 다양한 요구를 가진 가정들이 모여 자원을 공유하고 품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품앗이 집단 간의 연계, 다른 지역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전체 지역사회의 공동체문화 구축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환경 보호나 자원절약 등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집단으로 수행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관점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품앗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른 사업들, 예컨대 교육사업이나 상담사업, 캠페인, 홍보, 정보제공 등과 연계되어 확장되며 통합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데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품앗이 사업은 나눔과 참여, 연대 등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녹색 관점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 구축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생활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위자 간의 연대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같은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 즉 일상생활에서의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윤소영, 2009 : 167). 나아가 녹색성장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특히 강조되는데, 지역사회는 개인·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 되며, 새로운 녹색 생활양식 패러다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생활양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장과 합의의 장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최연실·성

미애, 2009 : 117)

이러한 맥락에서 품앗이 활동은 그 자체로 가족친화적인 마을과 지역사회 만들기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은 여러 측면에서 가족친화사회환경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기 때문인데, 가족친화환경이 개인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목표로 어린 아동과 노인 돌봄의 권리와 의무를 남녀와 세대는 물론 개별가족을 넘어 전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의 일과 생활세계의 조화, 일과 돌봄 및 여가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생활공간은 반드시 환경친화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가 관건이 되는 바, 바로 이러한 요건은 녹색성장의 주요실천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김혜영, 2009 : 58-59).

이런 맥락에서 차성란(2011 : 19-20)은 가정에서의 녹색가치의 실천, 즉 녹색생활을 위해 녹색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받아들이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가정으로, 다시 가정에서 마을로 나아가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관점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동체 문화 등은 가족친화사회문화 구축과 연계되며, 구체적으로는 품앗이 사업으로 표출되어, 건강가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 관점의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업 역시 개별가정의 역량 강화나 문제해결과 더불어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품앗이 사업 등에 현재보다 더욱 주력하여 건강한 시민의식, 공동체문화 등을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녹색 관점과 건강가정 사업이 연계되어 보다 실천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의 구성요소 중 시민의식, 가족 단위 자원 봉사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품앗이 사업이 공·사의 연계, 가족친화사회 문화조성 등의 과제와 연계되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녹색성장 관점과 건강가정을 연계시키는 두 가지 실천과제, 즉 자녀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문화 형성은 별도의 과제로 추진되면서도 상호 간 연계되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웃 간 돌봄품앗이 등 지역 공동육아나눔터와 연계한 가족품앗이 사업 활성화(여성가족부, 2011) 그 자체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것이며, 품앗이 사업 안에서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는 녹색 성장과 그 관점에 주목하여, 가정 그리고 가정생활이 주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 가정을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온 가정학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강가정과 관련된 실천 과제로 자녀돌봄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문화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녹색 성장 관점에서 강조하는 바, 지속가능성이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자녀돌봄과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이를 구체화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돌봄지원 사업들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맞춤형의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생태적 가치관, 환경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여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가에 따라 녹색 성장의 발전 가능성이 좌우된다는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품앗이 사업을 중심으로 한 향후 활성화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제 이러한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으로, 현재의 녹색 성장의 물결이 다분히 정부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가정학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학의 학문적 목표와 추구, 그동안의 연구내용들, 통합과 실천을 강조할 수 있는 ‘건강가정’의 개념 등이 직접적으로 녹색 성장이나 녹색 관점과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녹색’ 논의는 가정학이 주체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송혜립, 2009a).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 녹색성장 관점과 건강가정의 연계성을 자녀돌봄 지원 그리고 공동체문화 구축이라는 과제를 통해 모색하였는데, 실천현장에서의 프로그램들은 결국 관련 연구를 통해 현실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자에게 소구되는 체감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필요한 바, 생활양식과 생활문화 라는 차원에서 가정학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가정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가정생활양식, 가정철학, 가정경영, 자원관리 등의 주제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제가 생태적 가치관과 연계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생태적 생활양식,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 및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 환경과 생활의 조화와 균형 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생태적 생활양식,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이에 기초한 가정경영과 자원관리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관련 프로그램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 등의 사업에서 생태적 가치관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정학의 통합성과 실천성이라는 차원에서 건강가정은 다양한 하위연구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이기영 외, 2010: 24) 주목을 받아온 바, 이제는 녹색관점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를 포함시켜 건강가정 관련 연구

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그 사례로, 주거학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그린 홈은, 단지 친환경적 주거와 환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린 홈 컨설팅 혹은 그린 홈을 위한 생활설계와 같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과 결합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는 점, 즉 그린 홈의 내용과 구조는 주거학 분야에서 제공하되, 이를 컨설팅이나 생활설계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에는,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조사-->분석-->진단-->개선계획-->실행 등의 과정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녹색 성장을 위해 필요한 푸드마일리지, 식습관의 변화, 친환경적 의류소재 선택 등은 각각 식생활, 의생활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족자원관리의 주체가 수행하는 정보 탐색,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구매 결정, 환류를 통한 개선의 방안 마련 등의 관리과정이 개입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송혜림, 2009a).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제안들은 결국 가족이 갖는 생태적 가치관, 건강한 생활양식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건강한 부모역할모델을 제공해야 할 과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아동가족학적 관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학의 다양한 하위연구분야들이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등 녹색 관점의 주요 요소들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합하여 가정학적 관점에서의 녹색 관점으로 재구성되고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정책이 기술, 에너지, 환경, 자원 등을 다루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거시적 수준에서 구동되는 정책주제임을 알 수 있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는 거버넌스체제에서 가정이 독자적인 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이라는 지향성을 갖고 녹색성장 정책 그리고 관련 사업들과 연동될 필요가 있는 바, 이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건강가정과 관련된 정책, 연구, 실천 프로그램,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 등 관련 요소들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녹색 성장 기조가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세 차원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을 강조하되, 실제로는 환경보호나 사회정의의 차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성장을 보다 강조하는 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그리고 녹색 성장과 관련되어 다분히 기업과 산업 부분에 치중되는 불균형에 주목할 때, 녹색 관점에서의 다양한 전략들이 보다 균형적이고도 건강한 방식에서 자리매김되고 개인과 가정이 그 주체로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데, 이러한 과정에 가정학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생활로 가는 방법, 가정경영의 합리성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활방식, 이를 주도해 가는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가 보다 평등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하여 제안하며,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과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관계부처합동(2005).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함께 가는 가족.
- 2) 관계부처합동(2010).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 가족행복 더하기.
- 3) 권용혁(2011). 가족과 민주주의: 한국의 근대

- 가족에 대한 철학적 성찰. 2011 대한가정학회 통합 국제학술대회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족’ 기조강연. 1~16.
- 4) 권혁길(2006).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수행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국민윤리연구, 63, 111~141.
 - 5) 김석준(2009).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주최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4-1~4-25.
 - 6) 김혜영(2009). 녹색성장을 향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전략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여성의 역할’ 연구보고서. 56~73.
 - 7) 녹색성장위원회(2009).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방안(2009. 2. 16.)
 - 8) 대한가정학회(2007).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전 선포. 대한가정학회 60주년 기념식 자료집.
 - 9) 박성복(2003). 삶의 질의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회보, 7(3), 57~80.
 - 10) 박중수(2005). 지속가능한 주택디자인을 위한 환경시범주택의 사례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2(2), 130-139.
 - 11) 방석호(2009).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주최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4-27~4-45.
 - 12) 배순영(2009). 녹색생활혁명과 가정. (사)가건모 주최 제 3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13) 송혜림 외(2009).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사)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위탁연구 보고서.
 - 14) 송혜림(2005). 가정학에서 ‘건강’이라는 코드의 재해석과 전망. 2005년도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5) 송혜림(2007).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 지속가능한 생활과학, 도전과 비전. 대한가정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6) 송혜림(2008). 통합적 가정정책 - 선언과 실천. 2008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7) 송혜림(2009a). <토론문> 녹색가정 녹색생활 - 가정학에 대한 함의와 과제. 대한가정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녹색가정·녹색생활: 생활과학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생활양식’ 자료집.
 - 18) 송혜림(2009b). <토론>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경영전략’에 대한 토론. 2009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9) 송혜림·조영희·정영금·고선강·김유경(20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요구 및 정책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위탁연구보고서.
 - 20) 여성가족부(2011).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월삼 자료집.
 - 21) 윤소영(2009). 녹색생활과 문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부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젠더친화교육프로그램 개발. 158~177.
 - 22) 이기영(2007). 지나온 50년, 앞으로의 50년 - 미래 지향적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23) 이기영·김유경·송혜림(2010). 생활과학의 통합성과 실천성 - 과제와 대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21-33.
 - 24) 이연희·이현아·박재옥(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21-32.
 - 25) 이정전(2009). 녹색성장과 녹색소비. 대한가정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녹색가정 녹색생활’ 자료집.
 - 26) 정운경(200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가? 교육철학 32. 181-198.
 - 27) 조희금 외(2009). 건강가정론 2. 서울: 신정출판사.
 - 28) 조희금(2009).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경영

- 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9년도 추계 학술대회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경영전략’ 자료집. 21-36.
- 29)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a). 201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
- 3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b).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중간보고 및 실무자 간담회 자료집.
- 31) 진미정(2011). 한국가족정책 4G: 보편적 돌봄 중심의 가족정책.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 주최 2011년도 제 3차 가족정책 포럼 자료집.
- 32) 차성란(2011). 녹색성장을 위한 가정경영의 가치와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13-22.
- 33) 최연실·성미애(2009).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녹색 생활양식과 가족-. 대한가정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녹색가정·녹색생활: 생활과학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생활양식’ 자료집. 99-124.
- 3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9). 정부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젠더친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
- 3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제 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 36) 홍승아(2009). 젠더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여성의 역할’ 연구보고서. 1-28.
- 37) R. von Schweiter(1999).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주최 여성정책전문가 초청 강연 자료집.
- 38) R. von Schweitzer(1991).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Ulmer Verlag
- 39) R. von Schwietzer(1983). From the Economic Writings of Aristotle to Home Economics in the German Federal Republic Today.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1. 41-50.
- 투 고 일 : 2011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0월 1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1일